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스마트폰 사용수준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이 훈
(청주대학교)

장 수 미*
(청주대학교)

이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가정 어머니가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의 부정적 결과로서 중독행동에 주목하여, 양육스트레스와 스마트폰 사용수준의 관계를 살펴보고, 사회적 지지가 완충작용을 하는 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자는 C지역 어린이 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는 영유아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어머니로서, 총 87개 기관 182 명에게 한국어, 영어, 중국어 설문지를 배부하여 자기보고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기술통계 및 조절효과 검증을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다음의 주요 결과를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영유아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12.9%가 스마트폰 사용의 고 위험군(1.2%) 및 잠재적 위험군(11.7%)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통제 한 상태에서 양육스트레스는 스마트폰 사용수준을 예측하는 유의미한 요인이었다. 셋째, 사회적 지지는 양육스트레스와 스마트폰 사용수준 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확인되었고, 사회적 지지의 하위영역별로 살펴본 결과 친구지지가 유의미한 완충역할을 함 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중독행동에 대한 관심의 제고 및 민감성이 요구되며, 관련 기관간의 연계, 전문가 역량강화를 통해 적극적인 중독예방 프로그램의 실시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요용어: 다문화가정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스마트폰 사용수준, 사회적 지지

본 연구는 제1저자(이훈)의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 장수미, 청주대학교(jsumi@cju.ac.kr)

■ 투고일: 2016.7.31 ■ 수정일: 2016.9.6 ■ 게재확정일: 2016.9.22

I. 연구의 필요성

최근 우리나라는 세계화,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결혼이주여성,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활발해지고, 이에 따라 다문화가정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서 다문화 가정은 1980년대 후반에 나타난 용어로써 '하나의 가족 내에서 다양한 문화가 함께 한 다'는 의미이다. 즉 다문화가정이란 국제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정, 다중문화 가정, 서로 다른 인종의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있는 혼혈인 가족 등을 지칭해 왔으며(모선희 등, 2008), 우리와 문화적으로 다른 민족 또는 다른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포함된 가정을 통칭하는 것으로 분류되었다(이영주, 2007).

다문화가정을 형성하는 유형 중 국제결혼을 통한 결혼이주여성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행정자치부(2014)의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25,087명이었던 결혼이주여성은 2013년에는 150,865명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다문화가정 자녀의 증가도 예측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결혼이주여성의 국내 이주화가 오래 되지 않아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녀양육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고, 연구의 내용 및 범위 또한 제한적이다. 하지만 다문화가정 및 자녀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고 그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이선미, 이경아, 2010).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부모에게 만족감과 즐거움을 주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 심리적·경제적 부담과 육체적 피로감을 주며, 부모의 개인적인 생활과 여가 활용의 기회를 제약하는 등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안겨준다(박복매, 문혁준, 2008). 대부분의 다문화 가정 어머니는 한국 문화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입국하여, 가족생활에 있어서 의사소통 문제,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문제, 사회적 지위와 심리·사회적 고립의 문제, 경제적 문제, 가족 갈등 등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김갑성, 2006). 양육스트레스는 배가될 수 있다. 특히 자녀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다문화가정 어머니는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과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되고, 자녀양육에 많은 부담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된다(양승민, 2008; 최나야, 우현경, 정현심, 박혜준, 이순형, 2009; 이소희, 박영례, 김애림, 박성은, 2014). 그 이유로는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이 한국 사회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을 잘 모르며, 정보도 빈약하며, 모든 것에 대해 새롭게 배워야 한다는 사실이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혼란을 느끼고 자신감을 잃게 만들기 때문이다. 실제로

다문화가정 어머니와 비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비교한 연구에서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보다 높게 나타났다(김미숙, 2009).

최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중독 행동 간의 관련성을 보고한 연구가 발표되고 있어 주목된다. 관련연구를 보면, 김경남(2009)은 영유아기 자녀가 있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인터넷 쇼핑중독 성향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영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자기통제력,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를 살펴본 김영은(2013)의 연구에서는 양육스트레스와 스마트폰 중독 간에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와 중독행동의 관계에 대한 이론에서는 스트레스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전략의 부재가 중독행동을 초래하는 것으로 설명한다(Wills & Shiffmann, 1985; Sinha, 2008; Backer-Fulghum, Patock-Peckham, King, Roufa & Hagen, 2012). 즉 스트레스에 취약한 이들은 대처능력이 부족하며 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때 인터넷은 현실을 회피하는 도구가 되고, 인터넷 중독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권현주, 2007). 이러한 설명은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어머니들이 스트레스에 대한 해결방식으로 스마트폰에 몰입할 가능성이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손 안의 컴퓨터”¹⁾라고 불리는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은 양육스트레스를 겪는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에게 손쉬운 스트레스 대처 수단이 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광대역 인터넷망 보급률과 사용률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심규호, 이의규, 2009)이므로 높은 인터넷 접근성은 스마트폰의 사용을 더욱 용이하게 한다²⁾.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은 낯선 땅에서의 생활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 등을 본국에 있는 가족 및 친구와의 대화로 해소하려 하고, 이때 접근성이 뛰어난 스마트폰은 본국과 연결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결혼이주여성들은 양육과 가족부양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주로 본국의 가족이나 친구와의 채팅, 드라마나 영화 시청 등의 미디어를 적극 이용하며 스트레스 대처 방법이 부족하다고 하였다(홍중배, 유승관, 2014).

1) 데스크탑과 랩탑은 와이파이 및 4G를 통해 인터넷 사용뿐 아니라 문자, 온라인 게임, 소셜 네트워크와 같은 중독적인 앱을 갖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대체되었다. 스마트폰은 단순히 휴대폰을 대체한 것이 아니라 PC를 대체한 것으로 하루 24시간 사용자의 몸에 딱 붙어 있다(Samaha & Hawi, 2016, p.321).

2) 주부의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조동욱, 김희대, 김봉현(2014)의 연구에서 20~30대 주부는 인터넷, 동영상 많이 이용하여 기본 통신요금의 3배 정도를 지출하고 있으며, 40~50대 주부의 상당수(50명중 37명)는 퍼즐게임, 카드게임을 하루 3시간 이상하며, 게임이외에 SNS 사용으로 사생활노출 등 다양한 스마트폰 중독의 문제가 보고되었다.

실제로 다문화 이주외국인의 한국과 모국에서의 미디어 이용의 차이를 살펴본 연구(윤정로, 2012)에서는 모국에서보다 한국에서 이용시간이 더 늘어난 것으로 보고되었다. 즉 모국에서의 일일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은 55.65분인 반면, 한국에서는 88.36분으로 나타나 30분 이상 더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는 스트레스를 완충할 수 있는 변인으로 사회적 지지를 지목해왔다.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원으로서, 정명숙(2008)의 연구에서는 양육스트레스 감소에 남편의 지지가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고, 이주리(2013)는 출산 후 여성의 양육스트레스가 산후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의 역할을 살펴본 결과, 사회적 지지가 조절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자기지각, 사회적 지지와 우울의 관계를 살펴 본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가 우울 수준을 완화시킨다고 하였다(정지연, 2008). 사회적 지지는 양육스트레스를 겪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실증연구도 있었다. 김희수(2010)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부모역할에 대한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아지는데, 정서적 지지와 물질적 지지가 높을수록 결혼 만족도는 높아진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지지가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스트레스 대처에도 완충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제시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상의 연구는 대부분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스마트폰 사용수준 간의 관계 및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에 주목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어머니를 대상으로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스마트폰 사용수준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스마트폰 사용수준은 어떠한가?

둘째,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스마트폰 사용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셋째,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스마트폰 사용수준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는 조절 효과를 가지는가?

II. 이론적 배경

1.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다문화가정이란 국내에 정주하고 있는 국제결혼 가정을 지칭하는데, 본 연구에서 “다문화가정 어머니”란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결혼이민자로서, 자녀가 있는 여성으로 정의한다. 최근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국내에서는 농촌 총각, 도시 노동자들과 중국, 필리핀, 베트남, 태국 등에서 온 외국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급증하여, 그 수는 약 15만 명으로 추산된다(행정자치부, 2014). 한국인 부모 가정과 다문화 부모 가정의 출생아 수를 비교해보면(통계청, 2013), 한국인 부모의 출생아가 전년대비 2.7% 증가한 데 비해, 다문화 부모의 출생아는 4.1%로 증가추세가 더 높다. 앞으로도 결혼이민자의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다문화가정의 자녀수는 증가할 것임을 알 수 있다.

양육스트레스(Parenting stress)란 자녀 양육에서 요구되는 심리적 고통으로 정의된다(Anthony, Anthony, Glanville, Naiman, Waanders & Shaffer, 2005). 모든 부모는 어느 정도의 양육스트레스를 갖는데, 어떤 부모는 자신이나 자녀에게 부정적이며 고통스러운 정도로 경험한다. 양육스트레스는 부모의 심리적 복지, 결혼의 질, 양육의 질에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아동의 적응 및 정서적, 행동적, 신체적 발달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Deater-Deckard & Scarr, 1996; Chung et al., 2013, p.460 재인용). 다문화가정 어머니는 사회문화적 환경으로 인해 양육스트레스가 더해질 수 있다. Foss(1996)는 부모로의 전환과 이민자로의 전환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이민자 어머니(immigrant mother)의 양육행동에 관심을 가져야 함을 지적하면서 부모로의 전환, 이민자로의 전환 각각에 대한 연구는 많이 있지만, 이를 동시에 경험하는 자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며 사실상 간과되었다고 하였다.

국제결혼은 국적과 문화가 다른 두 사람의 결합이다. 사전에 충분한 준비 없이 결혼한 경우,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은 다양한 심리사회적 어려움과 출산 후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다문화가정의 어머니는 타국의 낯선 환경 속에서 많은 긴장과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으며(박기관, 2009), 자녀양육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부모역할 수행에 어려움이 크다고 알려졌다(박영아, 2010).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이 직면하게 되는 심리적 상태는 그들이 한국에 이주하면서 겪게 되는 스트레스, 즉

친구와 가족들과 떨어져서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심리적 불안감과 외로움, 사회·경제적 어려움, 차별이나 언어적인 어려움, 자녀양육의 어려움 등으로 한국 어머니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권명희, 2011). 김미숙(2009)의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어머니가 지각하는 양육스트레스는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 부족한 한국어 실력 때문에 생기는 의사소통의 문제, 낮은 소득과 연령, 양육에 관한 지식의 부족 등이 원인이라고 지적되었다.

한편, 국외 연구를 살펴보면, 타이완 어머니와 타이완에 거주하는 영아를 둔 베트남 이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심리적 건강을 비교한 Tsao, Creedy와 Gamble(2015)은 베트남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산후 우울증상이 원주민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임을 보고하였다. 타이완에 거주하는 베트남 어머니의 경우 양육경험이 있는 어머니들과의 교류도 어렵다고 하였다. Ong, Chan, Shorey, Chong, Klainin-Yobas와 He(2014)의 연구에서도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민여성이 영아를 돌보는데 정서적 불안정, 양육스트레스, 신체적 고통, 사회적 지지의 부족을 호소한다고 제시되었다. Belsky(1984)는 영유아를 둔 부모의 양육을 결정짓는 세 가지 요인으로 부모의 성격 및 심리적 복지, 사회적 지지체계, 아동의 특성이라고 하였다. 특히,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는 양육행동을 예측하는 주요한 결정요인으로서, 스트레스는 부부관계나 사회적 네트워크에서 어머니가 지지를 받을 수 없을 때 발생한다고 보았다. 이상의 국내외 연구결과 및 이론적 논의를 종합해 볼 때,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은 어머니가 된다는 변화에 적응해야 함과 동시에 문화와 생활방식이 다른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주변에 도움을 줄 사회적 지지체계가 부족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자녀를 양육해야 하므로 상당한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국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특성 및 예측요인은 국외 연구에서 제시된 요인과 유사하며 공통점이 있었다.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요인에 대해 살펴보면, 가장 많이 알려진 변인은 어머니의 연령으로, 나이가 어릴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미숙, 2009; 김춘화, 2009). 이는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감과 경험의 부족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나이가 어린 다문화가정 어머니는 결혼 생활 적응과 한국 생활의 적응에서 오는 부담감이 가중되어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김춘화, 2009). 또한 연령이 낮을수록 자녀양육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부족하여 불안감이

유발되고 이때 발생한 불안감은 스트레스나 우울에 영향을 미치므로 아동방임의 가능성이 커지고, 이로 인해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오애영, 2011).

한편, 한국에서의 생활 기간이 짧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는데, 한국에서의 거주기간이 5년 미만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가장 높다는 보고도 있다(김춘화, 2009). 이는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도 전에 자녀를 양육해야한다는 부담감이 양육스트레스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머니의 취업상태와 양육스트레스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업주부가 더 높다는 연구(이상만, 2004), 취업모와 비 취업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연구(하은경 등, 2003) 등 일관되지 않다. 이민역사가 오래된 서구에서는 인종, 사회경제적지위(Socio Economic Status: SES)와 이민자 가정의 스트레스간의 관련성에 일찍이 관심을 가졌다(Dumka, Roosa, & Jackson, 1997). 즉 미국 내의 아시아 여성이 미국 내 다른 여성보다 부정적인 생활사건과 스트레스를 더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rnstein, Park, Shin, Cho & Park, 2011).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해서도 유아를 둔 이민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Emmen, Malda, Mesman, van IJzendoorn, Prevoo, Marielle와 Yeniad(2013)는 낮은 SES가 양육스트레스를 예측하며, 낮은 SES로 인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 심리적 고통, 문화적응스트레스를 함께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2.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스마트폰 사용수준

아직까지 국내는 물론이고 국외에서도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스마트폰 사용수준³⁾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다음에서는 스트레스와 중독행동의 관계를 전반적으로 살펴본 후,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초점을 맞추어, 양육스트레스로 인한 결과로서 스마트폰 사용수준

3) 스마트폰 사용수준이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정도”로서,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중독의 기준에 따라 일반사용자군, 잠재적위험사용자군, 고위험사용자군으로 사용수준을 구분하고자 한다. 즉 스마트폰 사용수준이 높다는 의미는 스마트폰 중독의 고위험군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조작적 정의를 내린다. 본 연구에서는 임상표본이 아닌 지역사회표본을 연구대상자로 하여 스마트폰 중독의 고위험군 비율이 높지 않으므로 스마트폰 중독보다는 스마트폰 사용수준으로 명명하는 것이 적절한 표현으로 판단된다. 동일한 이유로 지역사회표본을 활용하는 선행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수준(장희정, 박윤경, 2015), 스마트폰 중독수준(현은자, 조메리명희, 조경선, 김태영, 2013),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박선숙, 2016)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과의 관계에 대해 고찰해보았다.

오랫동안 스트레스는 중독에의 취약성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트레스란 해롭거나 위협적인 사건, 자극에 대한 지각, 평가, 반응을 포함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Lazarus, 1999). 스트레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강도), 스트레스를 어떻게 예측하는지(예측성), 스트레스에 어떻게 대처하는지(적응성) 등은 중독과 같은 부적응적인 행동의 위험요인으로서 스트레스의 역할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Shinha, 2008, p.106). 중독을 설명하는 이론에서는 긴장을 감소시키기 위해, 부정적 정서에 대한 자가 처방의 수단으로 고통, 위축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중독행동을 반복하게 된다고 설명한다(Khantzian, 1985; Wills & Shiffman, 1985; Shinha, 2008).

선행연구에서는 정서적 스트레스, 가족의 압력, 사회적 자기효능감 등이 스마트폰 중독의 예측요인임에도 불구하고(Chiu, 2014), 스트레스와 스마트폰 중독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아직까지 활발하지 않음을 지적한 바 있다(Samaha & Hawi, 2016, p.324). 양육스트레스와 중독행동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도 매우 제한적인데, 영아기 자녀가 있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서혜성(2014)의 연구에서 양육스트레스는 스마트폰 중독을 예측하는 유의미한 변인이었고, 김영은(2013)의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양육행동, 가족관계, 아동의 성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본인의 스마트폰 중독과 정적 관계, 자기 통제력과 부적 관계가 나타났다. 24개월 이하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양육스트레스와 인터넷 쇼핑중독 성향 간의 관계를 분석한 김경남(2009)의 연구에서는 양육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인터넷 쇼핑중독 성향도 높아진다고 하였다. 서울 및 수도권 만3~6세 어머니 247명을 대상으로 한 현은자, 조메리명희, 조경선, 김태영(2013)의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 양육 효능감, 양육스트레스간에는 상관관계가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일반 사용자군의 어머니보다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영유아기 자녀를 가진 어머니의 중독행동, 특히 스마트폰 사용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에 양육스트레스가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양육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 결과로서 스마트폰 중독이 발생하는 기전에 대해서는 활동 제약이 큰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쉽게 접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 스트레스가 해소됨을 느끼나 과다사용으로 이어져 중독의 위험이 초래된다고 설명한다(서혜성, 2014, p.40). 다문화 가정 어머니는 양육스트레스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거나 대처하기보

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그 상황을 도피하려 하고, 이를 통해 생활과 양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다시금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악순환의 반복이 지적되었다(김영은, 2013). 이는 스트레스가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이 있으며, 그 관계는 여성에게서 더 강력하다는 van Deursen, Bolle, Hegner와 Kommers(2015)의 연구를 통해서도 뒷받침된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스마트폰 사용수준 간에는 인과관계가 밝혀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이 한국인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스마트폰 사용수준 간의 관계는 보고된 바가 거의 없다.

3. 양육스트레스와 스마트폰 사용수준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사람은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사회적 지지란 타인, 가족, 친구 등의 사회적 관계로부터 제공되는 정서적, 정보적, 도구적 지지가 자신에게 유용한 지를 스스로 느끼는 정도이다(Salami, 2010). 사회적 지지는 위기, 어려움, 스트레스, 역경 등을 극복하려는 인간에게 필요한 대처자원의 하나로서(홍미기, 2009), 스트레스 가능성을 줄이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대응능력과 적응력을 돕는 것으로 알려졌다(김경남, 2009). 사회적 지지가 결여되거나 부족하면 자존감과 정서적 안정감이 잠식되어 우울증상을 일으킬 수 있고, 사회적 지지가 충족되면 우울증상을 유발하는 스트레스를 차단시켜 줄 뿐만 아니라 어려움이 닥쳤을 때 도움을 청하고 이겨낼 수 있는 자신감을 심어준다고 하였다(이계성, 2013).

선행연구에서는 양육스트레스를 완충하는 사회적 지지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하은경 등(2003)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남편의 지지에 관한 연구에서 남편으로부터 신체적 지지, 정신적 지지, 정보적 지지 등 모든 영역에서 지지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를 덜 받는다고 하였다. 장애아동 부모(n=138)를 대상으로 양육스트레스가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김현주(2014)의 연구에서는 장애아동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적 지지가 조절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동일한 양육스트레스를 받는다 할지라도 사회적 지지 수준에 따라 아동학대의 위험성이 달라진다는 것으로,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를 완충하는 조절효과가 있음을 나타낸다.

사회적 지지는 다문화가정 어머니가 고국을 떠나 낯선 한국에서 새로운 가정을 만들고 자녀를 양육하며 생활에 적응해 나가는데 매우 필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최나야, 우현경, 정현심, 박혜준, 이순형(2009, p.259)의 연구에서 다문화가정의 어머니들은 가족과 지역사회에 적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한 사회적 지원 없이 출산과 육아를 하면서 심리적 고통을 받는다고 하였다. 그들은 다문화가정의 어머니들이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 체계의 부재로 양육스트레스를 겪으며, 지역사회에서 육아 정보를 얻는 것에도 곤란을 겪는다고 하였다. 이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간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결과이다.

실제로 결혼이주여성은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는데, 이 때 사회적 지지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권구영, 박근우, 2007).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양승민, 2008)에서도 남편 및 주변 사람들의 지지가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함이 나타났다. 즉, 사회적 지지는 결혼이주여성의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개인의 사회적 욕구충족, 신체 건강과 심리적 복지 실현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한국을 비롯한 아시안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서구 사회보다 체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므로(Yabbuuchi, 2004) 사회적 지지의 제공이 용이하지 않다. 예컨대, 한국과 미국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연구에서, 한국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난 결과는 아시아의 유교문화로 인해 사회적 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으로 해석되었다(Chung et al., 2013, p.466). 즉 아시안 사회에서는 사회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가정의 어려움을 노출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이다.

국외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는 양육스트레스와 상관관계가 있거나 양육스트레스를 낮추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rinic, Greenberg, Robinson, & Ragozin 1984; Harmer & Sanderson, 1999). 관련 연구를 보면, 소수민족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우울간의 관계를 탐색한 Huang, Costeines, Kaufman과 Ayala(2014, p.255)의 연구에서, 높은 양육스트레스와 낮은 사회적 지지는 우울과 관련이 있었고, 우울은 양육스트레스 및 이후의 아동발달간의 관계를 매개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영아를 둔 백인, 흑인, 아메리칸인디언, 히스패닉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비교한 연구에서는 흑인과 히스패닉 집단의 양육스트레스 평균이 더 높았고, 모든 집단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은 정적 관계,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는 부적 관계가 나타났다(Nam, Wikoff

& Sherraden, 2015). 이상의 연구는 다문화가정의 양육스트레스로 인한 결과로서 정신 건강의 어려움에 주목하였지만, 주로 변인간의 상관관계 및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본 제한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스마트폰 사용수준의 관계를 조절하는 변수로 사회적 지지를 선정하고, 그 관계를 실증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C시에 거주하는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영유아기 자녀⁴⁾를 둔 다문화가정 어머니이다. 다문화가정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특수성 때문에 표집은 유의표집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자들은 기관장의 협조를 얻어 다문화가정 어머니에게 설문지를 배포하고, 설문에 동의하는 자에 한해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설문을 완료한 후 봉투에 밀봉하여 기관장에게 설문지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연구 대상자의 경우 영어, 중국어로 번역된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설문지는 한국어로 작성한 설문지를 한국어 및 영어, 한국어 및 중국어에 능통한 이중 언어(bilingual) 전문가가 번역한 후 번역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또 다른 전문가의 확인 및 수정 작업을 하였다. 2016년 3월부터 4월까지 약 한달 간 87개 시설에 총 223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이 중 182부를 회수하였다(회수율 81.6%). 응답자중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자 2명, 무 응답자 1명, 응답누락 항목이 많은 17명을 제외한 총 162부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4) 「영유아보육법」에서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2013년 기준, 다문화가족 자녀는 19만 명이며, 이중 만6세 이하의 자녀가 11만 6천명으로 다문화가정 자녀의 상당수가 영유아기에 해당한다(다누리, 2014). 의사가 분명해지고 활동량이 많아지는 시기의 영유아를 둔 어머니들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피로를 느껴 양육스트레스를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알려지므로(Cmic & Greenberg, 1990; Lee, 2013; 이선영, 안선희, 2016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의 어머니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측정 도구

가. 양육스트레스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Abidin(1990)이 개발한 Parenting Stress Index(PSI)-Short Form을 사용하였다. PSI는 36문항으로 구성된 부모용 자기보고식 척도로써, 부모의 양육행동에서 발생하는 부모-자녀 체계의 역기능적인 면과 부모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을 밝히고자 개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신숙재(1997)가 요인분석을 실시한 20문항의 단축형 척도가 사용되었다.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학습 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 등의 3가지 하위영역이 있고,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총점이 높을수록 자녀 양육으로 인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신뢰도 계수(Chronbach α)는 .87이다.

나. 스마트폰 사용수준

스마트폰의 사용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2011)에서 개발한 성인 스마트폰 중독 척도(S-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상생활장애, 가상세계지향성, 금단, 내성의 네 가지 하위 요인을 포함한다. Likert식 4점 척도로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매우 그렇다)로 측정하며, 역 채점 문항은 4번, 10번, 15번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원척도의 신뢰도 계수(Chronbach α)는 .81이며(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본 연구에서는 .84로 나타났다. 성인 스마트폰 중독 척도는 스마트폰 사용자를 고위험 사용자군,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일반 사용자군으로 구분한다. 즉 총점 44점 이상이면 고위험군, 40점~43점 이하는 잠재적 위험군, 39점 이하는 일반군에 해당한다.

다.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 척도는 Zimet, Dahlem, Zimet 와 Farley(1988)에 의하여 개발된

MSPSS(The Multi- 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를 사용하였다. 하위 영역에는 가족지지(4문항), 의미있는 타자지지(4문항), 친구지지(4문항)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은 1점(거의 그렇지 않다)에서 5점(거의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12점에서 60점까지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는 .93로 나타났다.

라. 기타 변인

다문화가정 어머니와 관련된 일반적 사항에 대한 질문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연령, 국적, 학력, 직업, 월수입 등)과 가족 배경적 특성(가족형태 등),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스마트폰 사용 시간, 사용 목적 등)과 관련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인구사회학적 변인 및 가족 배경적 변인에 대한 스마트폰 사용수준의 차이를 ANOVA 및 Tukey 사후검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연령, 직업유형(전일제직장, 시간제직장, 전업주부)이 스마트폰 사용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나 이 변인들을 회귀분석모델에 통제변인으로 투입하였다.

3. 자료 분석 방법

자료 분석 방법으로는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양육스트레스, 스마트폰 사용, 사회적 지지의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기술 통계를 실시하였다. 둘째, 양육스트레스, 스마트폰 사용수준, 사회적 지지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양육스트레스가 스마트폰 사용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적 지지가 조절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시각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단순 기울기 검증을 하였다.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절대 값이 .5 이하임을 확인하였고, 공차한계 값 역시 .9 이상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제시되지 않았다.

위계적 회귀분석 모델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통제변인이 스마트폰 사용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으며, 두 번째 단계에서는 통제변인을 투입한 상태에서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스마트폰 사용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으며, 마지막 단계에서는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항(interaction term)을 추가하여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는 평균중심화(mean-centering) 한 후 상호작용항을 산출하여 사용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자의 특성

<표 1>은 연구대상자의 전반적 특성을 보여준다.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연령은 30대가 95명(58.6%)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20대 26.5%, 40대 14.8%이었다. 배우자의 연령은 40대가 112명(69.1%)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19.1%, 50대 이상이 8.6%, 20대 3.1%의 순이었다. 연구대상자의 최종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반 이상이었고(55.6%), 대학 졸업 이하 27.2%, 중학교 졸업 이하 12.3%, 무학 1.9%, 무응답 3.1% 이었다. 종교는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54.9%,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43.8%, 무응답 1.2% 이었다. 월평균 소득은 200만원~3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연구대상자가 38.3%로 가장 많았으며, 300만원 이상 29.0%, 100만원~200만원 미만 24.7%, 100만원 미만 6.8%, 무응답 1.2% 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국적은 중국 24.7%, 베트남 24.1%, 필리핀 14.8%, 일본 9.9%, 기타 25.3%, 무응답 1.2%으로 나타나 중국과 베트남에서 온 다문화가정 어머니가 절반정도이었다. 기타 25.3%에 해당하는 국적은 캄보디아,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미국, 태국 등 다양하였다. 가족형태에 관한 질문에는 핵가족 51.9%, 시댁식구와 거주 28.4%, 친정식구와 거주 10.5%, 기타 8.6%, 무응답 0.6%이었다. 하루 스마트폰 사용시간은 1시간 이상~2시간 미만이 33.3%로 가장 많았으며, 2시간 이상~3시간 미만 사용자는 23.5%에 해당하였고, 4시간 이상 사용자도 8%에 이르렀다.

표 1. 연구대상자의 특성

변인		빈도(명)	백분율(%)
본인 연령	20대	43	26.5
	30대	95	58.6
	40대	24	14.8
배우자 연령	20대	5	3.1
	30대	31	19.1
	40대	112	69.1
	50대 이상	14	8.6
학력	무학	3	1.9
	중졸 이하	20	12.3
	고졸 이하	90	55.6
	대졸 이하	44	27.2
	무응답	5	3.1
종교	있다	89	54.9
	없다	71	43.8
	무응답	2	1.2
월수입	100만원 미만	11	6.8
	100~200만원 미만	40	24.7
	200~300만원 미만	62	38.3
	300만원 이상	47	29.0
	무응답	2	1.2
국적	중국	40	24.7
	베트남	39	24.1
	일본	16	9.9
	필리핀	24	14.8
	기타	41	25.3
	무응답	2	1.2
가족형태	핵가족	84	51.9
	시댁식구와 거주	46	28.4
	친정식구와 거주	17	10.5
	기타	14	8.6
	무응답	1	0.6
스마트폰 사용시간	1시간 미만	37	22.8
	1~2시간 미만	54	33.3
	2~3시간 미만	38	23.5
	3~4시간 미만	19	11.7
	4시간 이상	13	8.0
	무응답	1	0.6

2. 연구대상자의 양육스트레스 및 스마트폰 사용수준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스마트폰 사용 수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양육스트레스의 경우(표 2), 평균과 표준편차는 2.44(.57)로 나타났다. 양육스트레스 문항의 응답범위가 1점~ 5점 사이에 있으므로, 연구대상자들은 보통 수준의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하위변인별로 살펴보면, 자녀기질과 관련된 양육스트레스는 2.55(.79), 학습기대와 관련된 양육스트레스는 2.58(.82)로서 보통 수준이상의 스트레스를 지각하고 있었고 최대값도 4.13, 4.33으로 나타났다. 자녀관계와 관련된 스트레스의 평균은 2.29(.54)으로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 결과를 동일척도를 사용한 다른 연구와 비교해보면, 유아를 둔 다문화가정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윤초연과 장영애(2012)의 연구결과보다는 다소 낮았으나(2.61~2.73), 유아를 둔 원주민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양육스트레스의 평균(2.27)보다는 높은 수준이었다(정향미, 안민순, 2009).

표 2. 연구대상자의 양육스트레스 수준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자녀기질	2.55	0.79	1.00	4.13
자녀관계	2.29	0.54	1.00	3.56
학습기대	2.58	0.82	1.00	4.33
양육스트레스 전체	2.44	0.57	1.00	3.60

<표 3>은 연구대상자의 스마트폰 사용수준을 나타낸 것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2011)의 스마트폰 중독 기준에 따라 분석해보면, 연구대상자의 대부분은 일반 사용자군(87.0%)에 속하였으나,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이 11.7%, 고위험 사용자군이 1.2%로 나타나 총 12.9%는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2015년 인터넷 과의존 실태조사(한국정보화진흥원, 2016, p.28)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성인의 11.4%가 잠재적 위험군, 2.1%가 고위험군이며, 총 13.5%가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군로 제시된 결과와 유사하다.

표 3. 연구대상자의 스마트폰 사용 수준

구분		빈도(명)	백분율(%)
스마트폰 사용 수준	일반 사용자군	141	87.0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19	11.7
	고위험 사용자군	2	1.2
	합계	162	100.0

3. 양육스트레스와 스마트폰 사용수준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가. 주요 변인간의 상관관계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스마트폰 사용수준, 사회적 지지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4). 양육스트레스와 스마트폰 사용수준의 상관관계 계수는 정(+)의 상관관계($r=.434,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회적 지지와 스마트폰 사용수준은 부(-)적 상관관계($r=-.169, p<.05$)가 제시되었다.

표 4. 주요 변인간의 상관관계

	양육스트레스	스마트폰 사용수준	사회적 지지
양육스트레스	1		
스마트폰 사용수준	.434***	1	
사회적 지지	-.154	-.169*	1

* $p<.05$, *** $p<.001$

나. 양육스트레스가 스마트폰 사용수준에 미치는 영향 및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다문화가정 어머니가 지각하는 양육스트레스가 스마트폰 사용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5). 통제변인은 스마트폰 사용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어머니의 연령과 직업유형 변인을 선정하였다.

모형 1에서는 통제변인이 스마트폰 사용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으며, 모형 2에서는 통제변인과 함께 독립변인인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스마트폰 사용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 변인을 투입한 모형 2의 R^2 증가량은 .184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01$). 양육스트레스의 표준화 회귀계수는 $\beta = .414$ 로 유의하여($p < .001$),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사용의 수준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는 김영은(2013)의 연구에서 영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변인($t = 6.83$, $p < .001$)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주 관심사인 양육스트레스가 스마트폰 사용수준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가 완충작용을 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모형 3에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항을 추가하여 검증해 보았다. 그 결과 조절변수를 투입한 상태에서 양육스트레스는 모형 2에서와 같이 스마트폰 사용수준에 여전히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beta = .427$, $p < .001$).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제시하는 모형 3의 R^2 증가량은 .021로 유의한 수준의 변화를 보였는데, 이는 상호작용항이 투입되어 2.1%를 추가적으로 설명함을 의미한다. 상호작용항의 표준화 회귀계수 값 역시 유의미하였다($\beta = -.161$, $p < .05$). 이는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이 스마트폰 사용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로서, 다시 말하여 양육스트레스가 스마트폰 사용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적 지지가 조절함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스마트폰 사용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적 지지의 수준에 따라 상이하며, 양육스트레스가 스마트폰 사용수준을 예측하는 요인이지만, 사회적 지지가 제공되면 스마트폰 사용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5. 양육스트레스가 스마트폰 사용수준에 미치는 영향 및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항목	모형 1		모형 2		모형 3	
	b	β	b	β	b	β
상수	2.516		2.437		2.398	
직업유형1	-0.141	-.142	-0.066	-.067	-0.069	-.070
직업유형2	-0.016	-.017	0.061	.063	0.021	.021
연령	-0.011	-.132	-0.010	-.119	-0.009	-.105
양육스트레스			0.314	.414***	0.324	.427***
사회적 지지			-0.055	-.094	-0.086	-.146
양육스트레스x사회적 지지					-0.158	-.161*
F		2.147		8.964***		8.353***
R ² (adj. R ²)		.039(.021)		.223(.198)		.244(.215)
R ² change		.039		.184		.021

* p<.05, *** p<.001

직업유형은 더미코딩 하였음. 직업유형1(전일제직장1, 전업주부0), 직업유형2(시간제직장1, 전업주부0)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사회적 지지 척도는 지지의 제공주체가 가족, 의미있는 타자, 친구로 구분되어 있다. 이에 구체적으로 어떤 주체로부터의 사회적 지지가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세부 분석을 실시해보았다. 그 결과, 친구로부터의 지지가 유의미한 조절효과가 있어 <표 6>에 제시하였다. 즉 친구지지의 조절효과를 나타내는 모형 3의 R² 증가량은 .022로 나타났고, 양육스트레스와 친구지지의 상호작용항에 대한 표준화 회귀계수 값은 유의하였다(β = -.166, p < .05). 이와 같은 결과는 다문화가정 어머니가 지각하는 양육스트레스가 스마트폰 사용수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 사회적 지지가 친구에 의해 제공된다면 스마트폰 사용수준이 낮아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즉 친구지지의 수준에 따라 양육스트레스가 스마트폰 사용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친구지지의 조절효과가 검증되었다.

표 6. 양육스트레스가 스마트폰 사용수준에 미치는 영향 및 친구 지지의 조절효과

항목	모형 1		모형 2		모형 3	
	b	β	b	β	b	β
상수	2.516		2.445		2.384	
직업유형1	-0.141	-.142	-0.071	-.072	-0.071	-.072
직업유형2	-0.016	-.017	0.063	.065	0.036	.037
연령	-0.011	-.132	-0.010	-.121	-0.008	-.099
양육스트레스			0.324	.427***	0.347	.458***
친구지지			-0.010	-.019	-0.038	-.072
양육스트레스×친구지지					-0.146	-.166*
F		2.147		8.546***		8.039***
R ² (adj. R ²)		.039(.021)		.215(.190)		.237(.208)
R ² change		.039		.176		.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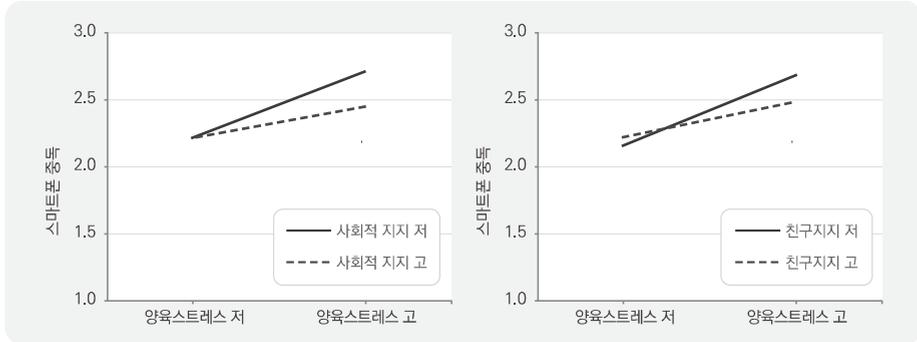
*p<.05, ***p<.001

직업유형은 더미코딩 하였음. 직업유형1(전일제직장1, 전업주부0), 직업유형2(시간제직장1, 전업주부0)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시각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단순 기울기 검증을 실시하였다(그림 1). 다문화가정 어머니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하는 집단(M+1SD)과 사회적 지지를 낮게 지각하는 집단(M-1SD),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집단(M+1SD)과 낮은 집단(M-1SD)으로 구분하여 스마트폰 사용수준에 대한 영향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양육스트레스가 낮은 집단보다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에서 사회적 지지가 낮을 경우 스마트폰 사용의 수준이 더 높아짐이 제시되었다. 한편 사회적 지지가 높은 집단에서는 양육스트레스의 수준에 따라 스마트폰 사용의 수준 차이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양육스트레스가 낮은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경우 사회적 지지의 수준에 따른 스마트폰 사용의 수준이 작게 차이가 났지만,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경우 사회적 지지에 따라 스마트폰 사용의 수준에 큰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가정 어머니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는 양육스트레스가 스마트폰 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다루어야 함을 시사한다.

그림 1. 사회적 지지 및 친구 지지의 조절효과



사회적 지지의 하위변인 중 친구지지의 조절효과를 시각적으로 살펴보면(그림 1), 양육스트레스가 낮은 집단보다 높은 집단에서 친구지지가 낮을 경우 스마트폰 사용의 수준이 더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친구지지가 높을 경우 양육스트레스에 따른 스마트폰 사용수준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스마트폰 사용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적 지지 중 친구지지의 수준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도록 한다.

V. 논의 및 결론

때때로 자녀는 부모에게 스트레스의 근원이 되지만, 부모가 이러한 양육스트레스를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다(Pelhem & Lang, 1999). 문화가 상이한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경우 상당한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로 인한 결과로서 중독행동에 대한 관심은 매우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스마트폰 사용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양육스트레스와 스마트폰 사용수준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완충역할을 하는 지를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C시의 영유아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어머니로서, 자기보고식 응답에 의해 조사된 설문지 162부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실천 및 정책적 함의를 논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보통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하위변인별로는 보통수준 이상의 양육스트레스가 보고되어(자녀기질 관련 스트레스 2.55, 학습기대 관련 스트레스 2.58),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는 물론 향후 예방을 위한 방안이 고려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지역사회 건강분야의 실무자들이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어려움에 민감성을 가져야 하며, 효과적인 개입과 지지활동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으로 양육경험이 있는 어머니들과의 교류를 제안하였다(Tsao, Creedy & Gamble, 2015). 사회적 접촉의 부족은 영아를 가진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우울의 예측변인이 되기도 한다(Wang, Guo, Lau, Chan, Yin & Chen, 2009). 양육경험이 있는 어머니와의 사회적 접촉은 사회적 지지를 증가시키고 동시에 양육스트레스의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다문화전문기관에서는 영유아를 키우는 다문화가정 어머니로 구성된 자조집단을 형성하고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스마트폰 사용수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잠재적 위험군 11.7%, 고위험군 1.2%로 나타나 2015년도 한국 성인의 스마트폰 사용 수준(잠재적 위험군 11.4%, 고위험군 2.1%)과 유사하였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6). 특히 이 조사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의 증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음이 지적되어(2.7% vs 1.4%), 여성 스마트폰 중독의 증가추세에 주목할 바 있다. 일반인과의 비교이외에 동일척도를 사용하여 영유아를 둔 한국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을 조사한 연구와 비교해보면(김영은, 2013), 잠재적 위험군 7.5%, 고위험군 2.2%로 나타나 본 연구대상자인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중독위험성(12.9% vs 9.7%)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스마트폰 보급률 및 인터넷 접근성이 뛰어난 국내에 비해 국외에서는 아직까지 이민자 어머니의 스마트폰 사용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관련 중독행동인 흡연(Urban et al., 2015), 문제음주(Falconier, Huerta & Hendrickson, 2016)의 경우는 이민자 가정이 원주민보다 높은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어, 스마트폰 사용수준도 유사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다문화가정의 어머니 역시 스마트폰 중독에 빠질 수 있는 고위험군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영유아를 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경우 스마트폰 중독의 예방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시사한다.

이제까지 국내에서 중독문제에 개입하는 전문가(예: 정신보건전문요원, 중독전문가, 중독전문사회복지사 등)들은 다문화가정의 중독행동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는 정신보건전문요원 및 중독관련 전문가들이 다문화가정을 주요 개입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며,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개입이 활발하지 않은 이유도 있을 것이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심리사회적 어려움에 개입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실무자들 역시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중독행동에 대한 관심은 크지 않으며, 센터 내에 중독문제에 전문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인력도 부족한 실정이다⁵⁾. 실제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하여 국민 4명 중 3명이 인지는 하고 있으나, 서비스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결혼이민자에 대한 서비스 수혜율 17%)하며, 획일적인 프로그램의 구성으로 다양한 서비스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이 지적된 바 있다(오애영, 2011). 따라서 본 연구결과에 따라 다문화가정에 개입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물론 관련 사회복지기관과 정신보건기관이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중독행동에 민감성을 가져야 할 것이며, 양 기관 간에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 및 상담, 연계, 사후 관리로 이어지는 체계적,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스마트폰 사용수준의 관계를 살펴 본 결과, 양육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스마트폰 사용의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경우 컴퓨터를 쉽게 할 수 없고 영아기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여가의 종류가 많지 않기 때문에(김영은, 2013) 발생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이는 다문화가정 어머니가 처한 독특한 사회문화적 환경 때문이기도 하다.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에게 스마트폰은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수단이 될 뿐 아니라 본국의 가족 및 친구 등과 연결되며(social connectness), 함께 함을 느끼는(togetherness) 통로로 작용하여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이 중독까지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Plant(2000)는 스마트폰이 “더 넓은 세계

5)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 이에 근거하여 결혼이민자가족센터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개칭·확대되어 다문화가정 관련사업이 추진되어 왔다. 구체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한국어교육,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의 정보제공 및 홍보,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연계,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 연계,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 번역 지원 사업, 그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6).

로의 지속적인 연결감"을 제공한다고 하였다. 스마트폰은 지속적으로 인터넷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휴대폰 유형으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대중적인 소셜미디어 웹사이트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이 가능한데(Lee, Chang, Lin & Cheng, 2014), 이러한 유형의 폰은 다른 행위중독과 유사한 특성을 지니며, 가장 강박적인 사용으로 이끄는 경향이 있다(Spacz & Clark, 2016).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스마트폰 사용의 관계에 대한 이와 같은 해석은 설득력이 있으리라 본다. 하지만, 사회적 연결성과 스마트폰 사용간의 관계는 비교적 새로운 가설로서(Spacz & Clark, 2016), 향후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검증이 필요하다.

넷째, 양육스트레스가 스마트폰 사용수준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그동안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은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들에서 강조되었지만 조절효과는 명확하지 않았다(현경자, 김연수, 2012). 반면, 본 연구에서는 양육스트레스와 중독행동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완충작용이 확인되어,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자원으로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됨을 제안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지지의 하위변인별로 살펴본 결과, 친구로부터의 지지가 양육스트레스로부터 유의미한 완충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타국에 와서 생활하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공감하고 지지하는데 친구관계가 중요함을 알게 해 주는 결과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의 기관에서는 다문화가정 어머니가 일회성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토래 모임이나 공동체를 형성하여 상호작용하도록 함으로써 친구로부터의 지지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친구집단이 모국에서 온 같은 국적을 가진 친구 집단인지, 국내에서 새로 형성된 친구 집단인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 관련 기관이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경감을 지원할 수 있는 친구지지 집단을 형성하는 데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친구지지체계 구축을 위해 고려해야할 사항은 다문화가정의 어머니들은 온라인커뮤니티 등 사이버 공간을 통해 본국 친구와의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지지를 제공받을 가능성이 크므로 스마트폰 사용의 순기능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Bacigalupe와 Camara(2012, p.1425)는 스마트폰의 사용, 국제전화의 가용성, 인터넷 연결성 등은 이민가정에게 핵심수단으로서 정보통신기술은 국가를 초월하여 네트워크를 가능하도록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다

문화가정 어머니의 경우 스마트폰은 사회적 지지를 제공받는 수단이지만 과도한 사용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 교육이 중독예방의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가장 가까운 남편 등의 가족의 지지는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가지지 못했다. 전홍주, 배소영, 곽금주(2008)의 연구에서 농촌 지역 다문화가정 아버지들은 양육에 참여하지 못하여, 어머니들이 양육을 책임진다는 결과가 도출된 바 있다. 즉 아버지들은 바쁜 업무로 인한 시간 부족과 양육이 어머니의 역할이라는 인식 때문에 자녀를 돌보는 일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보기 때문에(최나야, 우현경, 정현심, 박혜준, 이순형, 2009, p.265), 이러한 결과가 제시되었을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의 자녀 양육에 남편 등의 가족의 적극적인 지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의 설정 및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이 연구는 C시에 거주하는 영유아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국내에 거주하는 전체 다문화가정 어머니에게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분명한 제약이 따른다. 앞으로 다양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다문화가정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설문지가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상이한 국적을 가진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질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답변이 이루어졌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후속연구에서는 질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는 출신 국가별 언어로 이루어진 설문지에 의한 조사가 필요하다. 셋째, “사회적 바람직성(Social desirability)” 때문에 스마트폰 사용수준에 대해 솔직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향후에는 남편 등 가족을 통한 정확한 실태파악 및 질적 연구방법론을 활용한 탐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스마트폰 사용자가 급격히 늘고 이로 인한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유아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스마트폰 사용수준, 그리고 사회적 지지의 관계를 살펴본 거의 최초의 탐색적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권구영, 박근우. (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전라남도 거주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중심으로. *사회연구*, 14, pp.187-219.
- 권명희. (2011).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심리사회적 자원의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
- 권현주. (2007). 학업스트레스 대처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고학년의 학업스트레스 및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김갑성. (2006). 한국내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실태조사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 김경남. (2009).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인터넷 쇼핑중독 성향과의 관계: 24개월 이하 자녀를 둔 어머니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김미숙. (2009).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비교연구: 내국인과 결혼 이민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성결대학교.
- 김영은. (2013). 영아기 자녀를 둔 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자기 통제력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자기 통제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 김춘화. (2009).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지원 요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송실대학교.
- 김현주. (2014).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장애아동 학대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재활복지*, 18(1), pp.113-134.
- 김희수. (2010). 여성 결혼이민자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지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구·경북 지역 여성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 다누리. (2014). 결혼이민자 자녀현황. <http://www.liveinkorea.kr>에서 2016.5.20. 인출.
- 모선희, 이인희, 이선행, 김성운. (2008). 다문화가정의 문제점과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공주: 충남발전연구원*.
- 박기관. (2009). 다문화시대 결혼이민자의 실태와 정책과제. 2009년 한국지방자치학술대회 동계학술대회 자료집. 서울: 한국지방자치학회, pp.87-106.
- 박선숙. (2016). 대학생의 역기능적 부모-자녀·공격성 간의 관계: 스마트폰 중독경향성의 조절효과. *교정복지연구*. 41, pp.1-26.

- 박복매, 문혁준. (2008). 유아기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의사소통지향성과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6(10), pp.11-22.
- 박영아. (2010).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경험과 보육교사의 보육경험 실태, *유아교육연구*, 30(1), pp.197-224.
- 서혜성. (2014).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지식과 스마트폰 사용.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 신숙재. (199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심규호, 이의규. (2009). 조사동향: 국가통계조사에서의 IT 조사방법활용에 대한 연구. *조사연구*, 10(2), pp.137-161.
- 양승민. (2008). 한국적 다문화상담의 모색을 위한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들의 스트레스 요인과 반응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여성가족부. (2016). 다문화가족지원사업. <http://www.mogef.go.kr>에서 2016.5.20. 인출.
- 오애영. (2011). 다문화가정의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 윤정로. (2012). 다문화이주 외국인의 미디어 이용과 인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윤초연, 장영애. (2012).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3(1), pp.5-16.
- 이계성. (2013). 아동의 내외통제성과 우울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석사학위논문, 경인교육대학교.
- 이상만. (2004).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차이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이선미, 이경아. (2010).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7(3), pp.71-105.
- 이선영, 안선희. (2016). 걸음마기 한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4(1), pp.33-47.
- 이소희, 박영례, 김애림, 박성은. (2014).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영유아기 자녀 양육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가족복지학*, 19(4), pp.805-829.

- 이영주. (2007). 국제결혼한 여성의 자녀에 대한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2), pp.83-105.
- 이주리. (2013). 출산 후 여성의 양육스트레스와 산후우울의 관계: 배우자 지지의 중재효과.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 이훈. (2016).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석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
- 장희정, 곽윤경. (2015). 대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수준에 따른 자기통제력, 정신건강, 대인관계 비교.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6(1), pp.146-154.
- 전홍주, 배소영, 곽금주. (2008). 결혼이민자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자녀 교육지원의 실제와 의미: 필리핀과 일본 어머니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9(3), pp.161-186.
- 정명숙. (2008).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6), pp.107-121.
- 정지연. (2008).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자기지각 및 사회적 지지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정향미, 안민순. (2009) 어머니와 학령전기 아동의 기질 조화적합성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 대한간호학회지, 39(1), pp. 53-61.
- 조동욱, 김희대, 김봉현. (2014). 30~50대 주부를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중독 연구. 한국통신학회, 2014년 동계종합학술발표회 자료집. 서울: 한국통신학회, pp.459-460.
- 최나야, 우현경, 정현심, 박혜준, 이순형. (2009). 영유아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2), pp.255-268.
- 통계청. (2013). 인구동향조사. <http://www.kostat.go.kr>에서 2015.9.30. 인출.
- 하은경, 이종렬, 박천만, 조형재, 岡田節子, 中嶋和夫. (2003).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남편의 지지에 관한 조사연구. 기초과학연구회집, 22, pp.55-65.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스마트폰중독 진단척도 개발연구. <http://www.nia.or.kr>에서 2015.3.30. 인출.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6). 2015년 인터넷 과 의존 실태조사. <http://www.nia.or.kr>에서 2016.7.25. 인출.
- 현경자, 김연수. (2012).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우

- 울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7(4), pp.653-677.
- 현은자, 조메리명희, 조경선, 김태영. (2013).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 수준,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 관계연구. *유아교육연구*, 33(3), pp.207-225.
- 행정자치부. (2014). 2013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통계. <http://www.moi.go.kr>에 서 2015.3.30. 인출.
- 홍미기. (2009). 결혼이주여성이 인지한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부부적응에 관한 연구: 사회적 지지와 부부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홍종배, 유승관. (2014). 다문화 소외계층의 미디어 이용과 정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소 통학회지*, 23, pp.7-38.
- Abidin, R. (1990).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The stresses of parenting.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4), pp.298-301.
- Anthony, L., Anthony, B., Glanville, D., Naiman, D., Waanders, C., & Shaffer, S. (2005).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ing stress, parenting behaviors and preschoolers' social competence and behavior problems in the classroom.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14, pp.133-154.
- Backer-Fulghum, L., Patock-Peckham, J., King, K., Roufa, L. & Hagen, L. (2012). The stress-response dampening hypothesis: How self-esteem and stress act as mechanisms between negative parental bonds and alcohol related problems in emerging adulthood. *Addictive Behaviors*, 37(4), pp.477-484.
- Bacigalupe, G., & Camara, M.(2012). Transnational families and social technologies: Reassessing Immigration Psychology.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38(9), pp.1425-1438.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pp.83-96.
- Bernstein, K., Park, S., Shin, J., Cho, S., & Park, Y. (2011). Acculturation, discrimination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Korean immigrants in New York City. *Community Mental Health*, 47(1), pp.24-34.
- Chiu, S. (2014).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stress and smartphone addiction on taiwanese university student: A medication model of learning self-efficacy.

Computers in Human Behavior, 34, pp.39-57.

- Chung, K., Ebesutani, C., Bang, H., Kim, J., Chorpita, B., Weisz, J., & Byun, H. (2013). Parenting stress and child behavior problems among clinic-referred youth: Cross-cultural differences across the US and Korea. *Child Psychiatry & Human Development*, 44(3), pp.460-468.
- Crinic, K., & Greenberg, M. T. (1990). Minor parenting stresse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 pp.1628-1637.
- Crnica, K., Greenberg, M., Robinson, N., & Ragozin, A. (1984). Maternal stress and social support: Effects on the mother-infant relationship from birth to eighteen month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4(2), pp.224-235.
- Deater-Deckard, K., & Scarr, S. (1996). Parenting stress among dual-earner mothers and fathers: Are there gender differenc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0, pp.45-59.
- Dumka, L., Roosa, M., & Jackson, K. (1997). Risk, conflict, mothers' parenting, and children's adjustment in low-income, Mexican immigrant and Mexican American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9(2), pp.309-323.
- Emmen, R., Malda, M., Mesman, J., van IJzendoorn, M., Prevoe, M., Marielle, J., & Yeniad, N. (2013). Socioeconomic status and parenting in ethnic minority families: Testing a minority family stress model.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7(6), pp.896-904.
- Falconier, M., Huerta, M., & Hendrickson, E. (2016). Immigration stress, exposure to traumatic life experiences, and problem drinking among first-generation immigrant Latino couple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 33(4), pp.469-492.
- Harmer, A., & Sanderson, J. (1999). Influence of negative childhood experiences on psychosocial functioning, social support, and parenting for mothers recovering from addiction. *Child Abuse & Neglect*, 23(5), pp.421-433.
- Huang, C., Costeines, J., Kaufman, J., & Ayala, C. (2014). Parenting stress, social support, and depression for ethnic minority adolescent mothers: Impact on

- child development. *Journal of Child & Family Studies*, 23(2), pp.255-262.
- Khantzian, E. (1985). The self-medication hypothesis of addictive disorders: Focus on heroin and cocaine dependenc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2, pp.1259-1264.
- Lazarus, R. (1999). *Stress and Emotion: A New Synthesis*.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Lee, M. R. (2013). A study on the influencing factors of mother's parenting stress with the context of multi-cultural familie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4(4), pp.143-162.
- Lee, Y., Chang, C., Lin, Y., & Cheng, Z. (2014). The dark side of smartphone usage: Psychological traits, compulsive behavior and technostres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31, pp.373-383.
- Nam, Y., Wikoff, N., & Sherraden, M. (2015). Racial and ethnic differences in parenting stress: Evidence from a statewide sample of new mother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4(2), pp.278-288.
- Ong, S., Chan, W-CS, Shorey, S., Chong, Y., Klainin-Yobas, P., & He, H-G. (2014). Postnatal experiences and support needs of first-time mothers in Singapore: A Descriptive qualitative study. *Midwifery*, 30(6), pp.772-778.
- Pelhem, W., & Lang, A. (1999). Can your children drive you to drink? *Alcohol research & Health*, 23(4), pp.292-304.
- Plant, S. (2000). *On the mobile: The effects of mobile telephones on social and individual life*. CA: Motorola.
- Salami, S. (2010). Moderating effects of resilience,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on adolescents' reactions to violence. *Asian Social Science*, 6(12), pp.101-110.
- Samaha, M. & Hawi, N. (2016). Relationships among smartphone addiction, stress, academic performance, and satisfaction with life. *Computers in Human Behavior*, 57, pp.321-325.
- Shinha, R. (2008). Chronic stress, drug use, and vulnerability to addiction.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1141, pp.105-130.

- Spacz, M., & Clark, R. (2016). Are we addicted to our cell phones? *Computers in Human Behaviors*, 57, pp.153-159.
- Tsao, Y., Creedy, D., & Gamble, J. (2015) An exploration of parenting stress in immigrant and Taiwanese mothers. *Journal of Perinatal & Neonatal Nursing*, 29(4), pp. 287-295.
- Urban, M., I, Burghuber, O., Dereci, C., Aydogan, M., Selimovic, E., Catic, S., & Funk, G. (2015). Tobacco addiction and smoking cessation in Austrian migrants: a cross-sectional study. *BMJ Open*, 5, e006510.
- van Deursen, A., Bolle, C., Hegner, S., & Kommers, P. (2015). Modeling habitual and addictive smartphone behavior: The role of smartphone usage types, emotional intelligence, social stress, self-regulation, age, and gender. *Computers in Human Behavior*, 45, pp.411-420.
- Wang, Y., Guo, X., Lau, Y., Chan, K. S., Yin, L., & Chen, J. (2009). Psychometric evaluation of the mainland Chinese version of the Edinburgh Postnatal depression scale. *Int J Nurs Stud*, 46(6), pp.813-823.
- Wills, T., & S., Shiffman. (1985). Coping and substance abuse: A conceptual framework. In S. Shiffman & T. Wills. (eds.), *Coping and Substance Use* (pp.3-24). FL: Academic Press.
- Yabuuchi, A. (2004). Face in Chinese, Japanese and U.S. American cultures. *Journal of Asian Pacific Communication*, 14, pp.263-299.
- Zimet, G., Dahlem, N., Zimet, S., & Farley, G. (1988). The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2, pp.30-41.

이훈은 청주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아이원 어린이집에서 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아동복지이며, 부모교육, 스마트폰 중독 등을 연구하고 있다.
(E-mail: lhun1202@naver.com)

장수미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문학 석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청주대학교에서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의료/정신보건사회복지이며, 중독행동, 가정폭력, 만성질환과 사회복지 실천 등을 연구하고 있다.
(E-mail: jsumi@cju.ac.kr)

Parenting Stress and Level of Smart-phone use in Mothers of Multi-cultural Families: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Lee, Hun

(Cheongju University)

Jang, Soo Mi

(Cheongju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multi-cultural mothers' parenting stress on the level of smart-phone use and to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level of smart-phone use. The study was conducted based on a survey of multi-cultural mothers with young children who attend child care centers or kindergartens located in C city. The participants were 182 multi-cultural mothers. The major results are as follows. The high risk group of smart-phone addiction are 12.9%. Parenting stress was a significant factor predicting the level of smart-phone use, and social support moderated the relations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level of smart-phone addiction. Especially, the peer support had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s. In conclus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e need to implement preventive programs on smart phone addiction for multi-cultural mothers and to strengthen the social support for them at the individual, familial and community levels.

Keywords: Multi-cultural Mother, Parenting Stress, Level of Smart-phone Use, Social Support